

카스트 기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인도 대학생의 지지 유형화와 유형별 특성 분석

신진영, 최정욱

To cite this article : 신진영, 최정욱 (2020) 카스트 기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인도 대학생의 지지 유형화와 유형별 특성 분석,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구 문화교류연구), 9:4, 47-70

① earticle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학술교육원은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earticle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www.earticle.net

카스트 기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인도 대학생의 지지 유형화와 유형별 특성 분석*

신진영** · 최정욱***

국문초록

본 논문은 다문화 사회 인도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카스트 기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지지 유형을 분류하고, 그 유형별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다문화 국가들은 사회통합을 목표로 차별적 우대성격의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고, 한국도 점차 이러한 성격의 정책을 도입하는 추세이다. 사회통합 정책 시행에서 국민의 지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나, 현재까지 수용자의 지지도를 기반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그 특성을 파악한 연구는 매우 적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의 통합을 위해 오랜 동안 카스트 기반 우대정책 성격의 할당제를 실시해 온 인도를 대상으로 인도 대학생의 지지 유형과 그 특성을 분석하여, 한국의 다문화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인도 전역 1,8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도 할당제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고, 군집분석을 통해 지지도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사회통합 정책에 대한 지지 유형은 ‘전면지지형’, ‘전면부정형’, ‘현재중립/유지부정형’, ‘현재중립/유지긍정형’의 4가지로 유형화되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다문화 사회에서 차별적 우대정책의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학년’, ‘수혜집단’, ‘경제적 상황’, 노동시장의 ‘위험인지도’에 따라 유형별 특징을 분석을 하고 상관관계 분석(χ^2)을 통해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다문화 사회에서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책 지지 유형 및 이들의 복합적인 특성을 발견하였고, 정책 지지에 영향을 주는 핵심요인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사회통합정책, 다문화 사회, 인도, 정책 지지 유형화, 결정요인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2079749).

** 주저자, 한국의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연구교수

*** 공동저자,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 도입

사회통합은 모든 사회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발전 방향이다. 특히 다문화 사회는 다양한 분열의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통합이 중요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현재 각 국은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통합정책은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옮겨가고 있는 한국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일부 다문화 국가에서 사회통합정책의 일환으로 소외된 집단에 대한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적 이동을 통해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우대정책은 일반적으로 소외된 종족 혹은 민족에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교육 기관 입학, 채용에서 제한경쟁이라는 혜택을 제공하여 이들이 주류사회에 편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도 현재 결혼 이민자나 다문화 가정의 자녀 등 다문화 구성원을 고려한 차별적 우대 성격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이선형, 2017). 구체적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영재 프로그램에서 우선적으로 선발기회를 제공하거나, 공공기관 채용에서 결혼 이민자 대상 제한 경쟁을 실시하여, 이들의 주류사회 편승을 돕고 있고 있다. 즉, 한국은 다문화 사회를 일찍 경험한 국가들이 실시한 차별적 우대 성격의 사회통합정책을 도입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사회통합 정책은 ‘사회의 하나 됨’이 핵심 정책 목표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의 정책 지지 확보가 필요한데, 사회통합정책은 국민의 정책지지가 정책 목표인 동시에 성과이다. 따라서 사회통합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는 차별적 우대성격의 사회통합정책에도 예외는 아니다. 차별적 우대정책이 소외계층의 사회적 이동을 유도하여 사회통합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최근에는 해당 정책에 따른 역차별 의견도 분분하고 갈등도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미 부분적으로 이것이 문제 시 되고 있다(이코노뉴스, 2018).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우대정책의 도입 단계인 현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 양상 분석과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선제적인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다문화 된 사회에서 장기적으로 사회통합정책을 실시해 온 인도를 대상국가로 하여 할당제(Reservation Policy)에 대한 인도 대학생의 지지 의견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다문화 사회통합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현재 한국은 차별적 우대정책 도입 단계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정책에 대한

인식을 평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반면, 인도는 1950년대부터 사회통합을 위해 소외된 카스트에 대한 차별적 우대정책을 실시했는데, 이는 미국의 소수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보다 역사가 오래되었다. 사회통합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입안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다문화 사회에서 사회통합정책을 실시한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유효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 할당제의 지지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인도 대학생 1,8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인도 대학생의 정책지지에 대해 분석한다. 먼저, 인도 대학생들의 할당제에 대한 지지 의견을 분석하고, 지지 양상에 따라 유형화한다. 다음으로, 지지도 유형별 응답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정책의 지지 영향 요인을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연구를 기반으로 한국의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우대 정책 수립 및 홍보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II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다문화 사회의 사회통합 정책, 정책 지지 유형 및 영향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인도의 할당제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III장에서는 연구 대상과 설문지 구성, 지지도 측정, 자료 분석 방법 등 연구 전반에 대한 설계 및 분석 방법을 소개한다. IV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 지지 유형과 유형별 특성, 지지 유형과 영향 요인의 상관관계를 제시한다. 마지막 V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존 다문화 정책 관련 연구들이 정책 자체에 대한 연구나 정책 수행자에 집중되었던 반면, 본 연구는 정책 수용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면에서 차별성이 있으며, 본 연구 결과는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회통합정책 입안 및 지지를 위한 정책 홍보 마련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통합과 사회통합정책

UN은 사회통합을 ‘사회의 연합’, ‘모든 사람이 하나 되는 사회’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사회통합은 자연적으로 달성되기 어려운 것으로 각국은 사회통합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다문화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회통합을 위해 언어와 문화 등의 교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이민자들 유입으로 다문화 사회가 된 독일, 프랑스 등

의 유럽과 호주, 미국에서는 이민자들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주류 사회로 통합을 위해 이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공용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이민경, 2018). 또한 다문화 사회에서 소수민족의 정체성 존중과 다양성을 유지하며 사회통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들의 모어/문화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신진영, 2019). 우리나라의 다문화 구성원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도 교육정책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사회에서 사회통합은 이주민이나 소수민의 주류사회 적응만으로는 달성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OECD(2012)는 이주자나 소외된 계층이 주류사회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경제, 고용, 시민 참여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이동’이 실현될 때 사회통합이 달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소수자나 이주자를 대상으로 취업과 입학에서 제한 경쟁 등의 우대를 통해 사회 이동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적극적인 사회통합정책이다(Sowell, 2004; Sharma, 2005). 현재 일부 국가에서 사회통합을 위해 차별적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염철현, 2013). 노동이민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백인 이외의 유색 인종에 대한 우대 정책을 실시해왔고, 말레이시아나 브라질 등에서도 사회통합을 위해 낙후된 민족에 대한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이주자나 소수인종, 혹은 소외 민족 및 종족에 특혜를 제공하여 사회적 이동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부분적으로 노동시장, 가족지원, 정치참여, 체류나 국적 차별 금지법 등의 분야에서 사회통합목적의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허영식·정창화, 2012).

사회통합 정책에서 정책 목표, 정책 수단과 함께 중요시 되는 것은 ‘정책 대상’이다. 사회통합 정책은 궁극적으로 ‘사회의 연합’이라는 이념적인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정책 지원 대상자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정책 대상자, 즉 해당 공동체 전체가 광범위한 의미에서 ‘정책 대상자’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Bernard(1999)는 다원화주의에 입각한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허영식(2019)은 사회통합정책은 정책 대상자에 대한 상호이해, 소통, 그리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즉, 차별적 우대정책이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전반적인 지지가 필수적이다.

2. 사회통합정책 지지 유형 및 영향 요인

협회의 의미에서 정책 지지는 ‘정책의 도립/수립, 이행 및 모니터링에 대한 국민의 지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찬성 또는 수락’ 등으로 정의된다(Grega, Bahr, Dolphen &

Legros, 2016).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정책지지는 ‘신규 정책 준비에 대한 국민 참여’, ‘정책 확대 바람직성에 대한 국민의 동의’도 포함하여(박정훈 · 신정희, 2010), 정책 지속성에 대한 지지여부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사회통합정책의 지지는 현재뿐만 아니라 ‘정책 확대’나 ‘정책 지속성’에 대한 국민의 지지까지 포괄한다.

다문화 사회에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차별적 우대정책 인지와 지지에 대한 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미국은 1960년대부터 소수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실행 중이며, 현재 대학입시와 고용에서 소수 집단에 대한 우대를 제공하고 있다(Braswell, Moore & Poe, 1998). 미국의 소수인종 우대정책에 대한 지지 연구는 특히 ‘정책 인지 여부’, ‘정책 지지 집단 유형’, ‘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구학적 특성 중심)’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2006년에는 미국 성인(흑인, 백인, 라틴계)을 대상으로 소수인종 우대정책에 대한 지지 및 정책지원 분야별 지지 연구가 있었다.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이념성향에 따른 소수인종 우대정책 지지와 정책지원 분야별 지지와 이들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로, 연구결과 정책 지지 집단은 부정, 중립, 긍정 유형으로 나뉘지며, 백인이 정책에 대해 부정인 것으로 나타났다(Haley & Sidanius, 2006). 소수인종 우대정책에 대한 ABC뉴스와 CBS뉴스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자료에 따르면, 우대정책의 지지 양상은 찬성과 반대 집단으로 나뉘며, 흑인과 소수집단이 현재 정책의 유지를 지지하며, 향후에도 정책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Public Perspective, 2003).

2007년 미국 미시간 주에서 대학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입학 시 적용되는 소수인종 우대정책에 대한 정책 인지 및 지지를 중심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지여부를 4점 척도(매우 긍정, 긍정, 부정, 매우 부정)로 측정하여, 지지 집단을 분류하였고,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결과 인종과 정치성향, 정책지식은 정책지지여부에 영향을 미치나, 다른 변인(소득, 교육수준, 직업, 나이, 성별)은 지지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Carr, 2007). 이후 10년이 지난 2018년에 유사한 연구가 테네시 주에서 진행되었는데, 연구 결과 인종과 교육에 따라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지지여부가 달라지며, 유색인종과 소수인종이 우대정책에 긍정적이며, 인문계열 응답자가 우대정책에 대해 긍정적이었다(Peters, 2018).

차별적 우대정책의 지지는 시기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대입과 고용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백인들을 중심으로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며 지지양상이 달라졌다(Detroit News, 2004; 이종일, 2018). 말레이시아의 경우도 경쟁상황의 변화에 따라 정책 지지양

상이 달라진 사례로 볼 수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소수의 중국계(20~22%)가 산업계의 약 90%를 점유하면서(Abdullah, 1997), 말레이인과 중국계의 경제적 격차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말레이인에 대한 경제 우대정책을 실시했다. 이 정책은 다수인인 말레이인에게 취업 및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이들의 사회적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정책 실시 이후 혜택을 받지 못한 중국계는 경제적 입지가 줄어들었고, 이들의 정책 반대가 강해졌으며, 극단적인 경우는 해당 정책 때문에 이민을 선택하는 경우도 생겼다(Economist, 2013). 이들 사례에서는 경제적 상황의 변화와 경쟁심화, 정책 수혜여부가 차별적 우대정책 지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차별적 우대정책 지지에 국한된 연구는 거의 없지만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다문화 정책 인지 및 지지에 대한 선행연구가 있다. 이 연구들은 주로 다문화 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정책지지 집단별(찬/반) 연구도 일부 있다. 이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학력, 경제적 상황, 노동시장 위협과 공공지출비용 증가에 대한 압박, 다원주의 인식 등이 한국인의 다문화 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원숙연, 2011; 조정인, 2011; 임동진·박경진, 2012; 고재권, 2014; 홍서연·손병덕·손주희, 2018).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사회통합목적의 차별적 우대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 유형 집단은 일반적으로 지지(찬성)와 반대로 구분하고 있으며, 정책 지지에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요소는 인종 혹은 정책수혜 대상자 여부, 교육(학력이나 전공), 경제적 상황, 위협인지도 등이다.

3. 인도의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적 우대정책

다양한 민족과 언어, 문화로 구성된 인도는 다원주의적인 입장에서 사회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인도는 소수종족이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를 보존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시행하고(Sukhdev, 2016; 신진영, 2019), 소수 민족이나 소외 카스트가 주류사회로 편입될 수 있도록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차별적 우대정책 성격의 할당제(Reservation Policy)를 실시하고 있다(Sharma, 2005; Borooah, Dubey & Iyer, 2007).

카스트 기반 우대정책인 인도의 할당제는 1950년에 도입된 정책으로, 사회통합 목적의 우대정책으로는 가장 오래된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Sharma, 2005)¹⁾. 할당제의 도입

1) 인도에서는 1880년대부터 할당제도가 존재했으나, 이는 영국이 인도 식민통치를 위해 실시한 것으로, 사회통합 목적의 차별적 우대정책에 포함하기는 어렵다.

은 인도 내 소수 민족의 분리 독립운동을 막고, 힌두 공동체의 단결 유지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Choi & Kurmar, 2019). 가장 먼저 본 정책은 불가촉천민 혹은 지정카스트(Scheduled Caste; SC)에게 적용되었다. 이후 낙후 지역민의 사회·경제적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부족(Scheduled Caste; ST)을 할당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1979년부터는 할당제의 대상과 정책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1970년대 말부터 인도정부는 SC와 ST이외에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받는 카스트(Other Backward Classes; OBC)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고, 1990년 싱 총리(V.P. Singh)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 및 채용에서 OBC에 대한 차별적 우대를 추진하였다(Ramaiah, 1992). 그러나 일부 국민들은 이를 반대하였고, 결국 대법원 소송으로 이어졌다. 인도 대법원은 할당제 적용 범위를 전체 정원의 50%를 넘길 수 없다고 판정하며, 사건을 마무리하였고(Indiakanoon, 1992), 1990년 중반부터 할당제 대상은 SC, ST, OBC로 확대되었다.

인도 할당제의 주요 우대 내용은 공공부문 채용과 국공립 대학 입학, 연방정부의회 하원(Lock Sabha)과 주의회 의원, 지방의회의원직에서 일정 비율을 SC, ST, OBC에 할당(Reservation)하며, 이는 공공기관에서의 승진 등에도 적용되었다(Government of India, 2014). 각 수혜 집단별 우대정책 적용 비율은 커뮤니티 별 인구 비례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정확한 카스트의 인구 구성비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 때문에 SC는 15%, ST는 7.5%, OBC는 27%(각 기관 입학 및 채용 전체 인원), 총 수혜비율은 49.5%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Government of India, 2014; 최정욱, 2019)²⁾. 인도 내에서 수혜자와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민간기업과 사립학교에 대한 차별적 우대정책 적용 확대 요구가 있었으나, 비수혜자들의 반대로 현재는 국공립 기관 채용과 국공립 대학 입학, 그리고 의회 의석에 할당제가 적용되고 있다.

카스트 기반 할당제의 경우 인도 성립기에는 소수민족의 분열을 막아 통합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현재는 소외계층의 사회적 이동을 촉진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Borooah et al, 2007). 그러나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들이 카스트 기반 우대정책에 대해 반대를 표출하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인도 정부는 2019년 혜택을 받지 못하던 일반 카스트 중 경제적 소외 계층을 정책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비록 인도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의 일부를 수정하였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할당제에 대한 지나 요구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은 현재까지 없는 실정이다.

2) 2019년 총선 직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반 카스트에 대한 10% 할당 제도를 도입하였고, 우대적용 사항은 SC, ST, OBC와 유사하다(Government of India, 2019).

Ⅲ. 연구 설계 및 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는 인도 대학(원)생의 카스트기반 할당제(Reservation Policy)에 대한 지지도를 바탕으로 지지 집단을 유형화하고 그 유형별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차별적 우대 성격의 정책지지 여부는 '혜택을 받는 대상자 집단'과 '혜택에서의 배제되는 집단'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었다(Public Perspective, 2003; Choi & Kumar, 2019). 인도에서 할당제는 대학 입학 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수혜집단 입시생은 혜택을 받는 반면, 일반카스트 입시생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즉, 생애주기에서 할당제를 가장 먼저 경험하는 대상은 대학생이며, 이들은 향후 채용과정에서도 혜택과 배제의 경험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할당제에 대한 명확하고 강력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 다문화 사회의 변화 예측을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 왔다(이부영·강운선, 2015; 염미경, 2012; 박혜숙·원순미, 2010). 따라서 인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은 연구의 목적에도 적합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 시사점을 제공하기에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원)생을 4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론적 배경에서 정책 지지 여부는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히 정책 수혜여부, 경제적 상황, 교육, 위협인지도의 요소가 차별적 우대성격의 사회통합 정책지지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대학생 집단을 분류하였다.

첫째, 할당제의 혜택 받는 카스트(SC, ST, OBC)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 카스트로 집단을 나누었다. 둘째, 가구의 소득에 따라 대학(원)생 집단을 분류하였다. 셋째, 교육에 따른 집단별 지지도의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학년별로 분류하였다. 넷째, 위협인지도는 노동시장 위협인지도에 따라 대학(원)생 집단을 분류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위협인지도는 세금부담과 노동시장에서 경쟁 심화 요소 등으로 나타나는데, 대학생의 경우 납세 경험보다 노동시장 경쟁요소가 더 강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2. 설문지 구성

현재까지 설문조사에 기초한 인도 할당제 지지 관련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소수인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 지지 및 인지에 대한 설문 문항을 토대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다만, 일부 내용을 인도의 상황에 맞도록 변형하였다. 또한 ‘정책 지지’가 현재 정책뿐만 아니라 정책 확대 및 유지에 대한 개념을 포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항도 포함하였다. 연구자가 설문을 작성한 이후 인도 할당제 전문가의 검수를 거쳤다. 또한 측정 문항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정 과정을 거쳤으며, 이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설문문항은 미국의 소수인종 우대정책에 대한 지지 및 태도를 측정을 위해 Carr(2007)이 구성한 문항을 기초로 하였다³⁾. 이중 ‘도덕적인 입장(morally support)’에서 지지 당위성 관련 문항을 제외한 4개 문항(정책 대상별-소수민족, 여성, 체육특기생, 인종-지지)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의 할당제에 맞도록 정책 대상별 질문을 구성하여 ‘SC/OBC/ST의 할당제 적용을 지지하는가?’로 문항 3개를 구성하였다. Haley & Sidanius(2006)의 연구에서 정책지원 분야별 지지에 대한 문항을 채택하여, 대상별로 인도에서 할당제가 적용되는 분야(일자리, 대학입시, 의원직)에 대한 지지 관련 질문 6개를 구성하였다⁴⁾. 선행 연구에서 정책 지지는 ‘정책 지속에 대한 지지’가 포함된다(Public Perspective,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대상별로 향후 할당제 확대에 대한 질문 6개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할당제 지지여부에 대한 세분화된 평가를 위해 10점 척도(매우반대 1<- 5(중립) ->10 매우찬성)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검증된 인구·사회학적 요인(학력, 경제적 상황, 위협인지도)을 포함하였으며, 인도의 상황에서 ‘정책 수혜대상은 카스트이기 때문에 이 문항을 포함하였다. 경제적 변수의 경우, 2018년 인도 평균 소득이 ₹114,958(약 \$1,500)인 것을 고려하여(LiveMint, 2019), ‘₹100,000미만’은 저소득층, ‘₹100,000초과~500,000이하’는 중위소득층, ‘₹500,000초과~2,000,000이하’는 상위소득층, ‘₹2,000,000초과’는 고소득층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위협인지도 평가는 노동시장 위협인지를 중심으로 하였다. 이는 ‘졸업 후 취업의 어려움’에 대해 실시한 설문을 바탕으로 ‘저(없음), 중, 고(높음)’로 분류하였다. 이외, 인도 대학생들 대부분이 영어 활용능력이 뛰어난 것을 고려하여 설문지는 영어로 작성되었다.

3) 그가 선정한 10개 문항은 선행연구에서 우대 정책지지에 유효한 것으로 검증된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다(Carr, 2007).

4) 인도 할당제는 ST, SC, OBC로 분류하나, 일반적으로 인도 현지에서는 ST/SC에 대한 할당제 적용 시기가 유사하고, 인도 내에서도 이 두 집단을 묶어서 분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질문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야별 할당제 지지는 SC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3.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2018년 4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40일 간 진행하였다. 조사 대상지역은 인구 상위 20개 주 및 연방 직할령으로⁵⁾ 이 지역의 120개의 대학이 포함되었다. 설문조사는 인도에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설문조사 전문업체(FMAS CODE PRIVATE)를 통해 진행하였고, 20명의 훈련 받은 조사원이 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에는 카스트 집단과 소득에 대한 질문 등 개인적으로 민감한 문항이 있어 응답에 대한 비밀보장과 설문 응답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설문지 수거 이후, 본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 확인 및 코딩을 검수하였다.

설문조사 참여자는 총 1,800명으로, 학년별, 카스트별 비율을 고려한 층화표집을 적용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명	%
학년	1학년	523	29.1
	2학년	481	26.7
	3학년	516	28.7
	4학년/대학원생	280	15.5
카스트 집단	SC	172	9.6
	ST	130	7.2
	OBC	484	26.9
	일반카스트	1,014	56.3
경제적 상황	저소득층	262	14.6
	중위소득층	1,097	60.9
	상위소득층	332	18.4
	고소득층	100	5.6
위험인지도 (노동시장)	무응답	9	0.5
	저	109	6.1
	중	801	44.5
	고	890	49.4
	합계	1,800	100

5) 조사 대상 20개 지역에는 연방지역인 Delhi와 Andhra Pradesh, Assam, Bihar, Chhattisgarh, Gujarat, Haryana, Jharkhand, Karnataka, Kerala, Madhya Pradesh, Maharashtra, Orissa, Punjab, Rajasthan, Tamil Nadu, Telangana, Uttar Pradesh, Uttarakhand, West Bengal 주가 포함되었다.

하였다⁶⁾. 다만, 인도의 경우 학부가 3년제인 경우가 많아 1~3학년까지는 학생의 비율을 고르게 분배하였고, 4학년과 대학원생은 하나의 카테고리 분류하였다.

학년별 층화표집 비율은 인도인적자원부(Ministr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의 전 인도 고등교육 통계(All India Survey on higher Education)를 바탕으로 하였고(Ministr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2018), 카스트별 비율은 할당제 적용 비율을 고려하였다.

4. 측정 및 분석방법

본 설문결과 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26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의 통계분석을 하였다. 첫째, 사회통합정책의 수용성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항목 15개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지지는 ‘현재 사회통합정책 지지’와 ‘향후 사회통합정책 유지 지지’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표 2〉 할당제 지지도 측정항목의 신뢰도와 타당도

변수	측정항목	요인적재값		Cronbach Alpha
		1	2	
현재 통합정책 지지도 (9개 항목)	SC에 대한 할당지지	0.877	0.183	0.971 (0.970표준 화된 알파값)
	OBC에 대한 할당지지	0.861	0.153	
	ST에 대한 할당지지	0.860	0.163	
	SC에 대한 공공부문 일자리 할당지지	0.886	0.172	
	SC에 대한 대학입학 할당지지	0.897	0.145	
	SC에 대한 의원직 할당지지	0.851	0.173	
	OBC에 대한 공공부문 일자리 할당지지	0.882	0.168	
	OBC에 대한 대학입학 할당지지	0.883	0.173	
	OBC에 대한 의원직 할당지지	0.847	0.202	
향후 통합정책 지지도 (6개 항목)	향후 SC에 대한 대학입학 할당지속지지	0.196	0.823	0.950 (0.950표준 화된 알파값)
	향후 SC에 대한 공공부문 일자리 할당 지속지지	0.186	0.890	
	향후 SC에 대한 의원직 할당지속지지	0.156	0.876	
	향후 OBC에 대한 대학입학 할당지속지지	0.160	0.906	
	향후 OBC에 대한 공공부문 일자리 할당지속지지	0.141	0.903	
	향후 OBC에 대한 의원직 할당지속지지	0.132	0.878	

6) 각 지역별 대학의 분포가 5-13%로 대학의 수가 지역마다 달라, 지역에 따른 층화표집은 다소 어려웠다.

측정 항목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현재 사회통합정책 지지도와 향후 사회통합정책 지지도의 요인적재값 0.8이상으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0.6보다 높아 측정 도구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요인 1에 대한 *Cronbach Alpha*값은 0.971, 요인 2에 대한 *Cronbach Alpha*값은 0.950으로 두 요인 모두 학계에서 인정되는 신뢰수준 0.7보다 높아 신뢰성도 인정된다.

선행연구에서 사회통합정책의 수용성에 영향을 주는 인구·사회학적(학력, 수혜여부, 경제적 상황, 위험인지도) 요인과 ‘현재 사회통합정책 지지도’와 ‘향후 사회통합정책 유지 지지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요인별로 지지도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ANOVA 테스트 및 사후 검정(*Scheffe*)을 하였다.

이 후 본 논문의 핵심 목표인 인도 대학생들의 사회통합정책 지지도를 유형화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비슷한 값을 가지고 있는 자료 및 샘플 간을 거리로 환산하여 가까운 자료 및 샘플을 동일한 집단으로 묶어 특성들이 유사한 집단을 분류해내는 것이다. 군집분석은 측정치의 거리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상관관계를 이용하는 요인분석이나 판별분석과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사례 수는 1,800개로 매우 많아 계층적 군집분석에는 한계가 있고, 계층적인 분석방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계층적 군집분석 방식을 채택했다. 군집분석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K-평균군집분석 방법으로 실시했고, 군집분석 후 군집 간의 배타성이 인정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ANOVA 테스트를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인도 대학생들의 사회통합 수용성에 대한 군집분석 유형화 자료와 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에 대해 교차분석을 하여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후 지지 유형화 집단과 인구·사회학적 요소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χ^2)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사회통합정책의 지지도 분석

1) 현재 사회통합정책 지지도

인도 대학생들의 사회통합정책 지지에 대한 파악을 위해 정책 지지도와 사회통합정책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학년, 수혜집단여부-카스트 집단, 경제적 상황, 위험인지도)과 교차분석을 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연구 대상 1,800명의 ‘현재 사회통합정책 지지도’의 전체 평균은 4.39점(매우반대 1<- 5(중립) ->10 매우찬성)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부정’으로 약간 기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도와 인구·사회학적 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지지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정책수혜집단별 지지도를 살펴보면, SC와 ST 집단의 평균은 중립 점수(5점)보다 높은 반면, OBC와 일반카스트의 지지도 평균은 5점보다 낮았다. 경제적 상황에 따른 지지도의 경우, 모든 경제 집단의 카테고리에서 지지도의 평균은 5점이하였고, 중위소득층의 평균이 4.58점으로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노동시장의 위험인지도에 따른 현재 사회통합정책 지지도 평균은 모든 카테고리에서 중립 점수(5점)보다 낮았다. 다만, 위험인지도를 중간으로 인지한 집단의 평균이 4.51점으로 다른 집단의 지지도 보다 높게 나타난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따라 ‘현재 사회통합정책 지지도’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ANOVA 테스트를 시행했다. 분석 결과, 4개 인구·사회학적 요인 모두에서 통계적인 차이(유의수준 $p < .001$)가 인정되었다.

<표 3> 인도 대학생의 현재 사회통합정책 지지도

구분	n	M	S	F	<i>scheffe</i> *	
학년	1학년	523	4.10	2.94	6.634***	1,2 < 3,4*
	2학년	481	4.16	3.01		
	3학년	516	4.69	2.42		
	4학년/대학원생	280	4.77	2.84		
	전체	1,800	4.39	2.82		
수혜집단여부 (카스트집단)	SC	172	5.38	3.27	27.191***	OBC, 일반 < SC, ST*
	ST	130	6.01	2.6		
	OBC	484	4.28	2.81		
	일반카스트	1,014	4.07	2.66		
	전체	1,800	4.39	2.82		
경제적 상황	저소득층	262	4.36	3.05	5.358***	고 < 저, 중, 상*
	중위소득층	1,097	4.58	2.64		
	상위소득층	332	4.06	3.06		
	고소득층	100	3.77	3.03		
	전체	1,791	3.92	2.5		
위험인지도 (노동시장)	저	109	3.23	2.99	10.201***	저 < 중, 고*
	중	801	4.51	2.47		
	고	890	4.43	3.05		
	전체	1,800	4.39	2.82		

* $P < .05$, ** $P < .01$, *** $P < .001$

2) 향후 사회통합정책 유지 지지도

‘향후 사회통합정책 유지 지지도’에 대한 지지도와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연구 대상 1,800명의 ‘향후 사회통합정책 유지 지지도’의 평균은 3.92(매우반대 1<- 5(중립) ->10 매우찬성)로 반대하는 입장이며, 이는 ‘현재 사회통합정책 지지도’보다 낮은 수치이다.

학년별 ‘향후 사회통합정책 유지’에 대한 지지도의 경우, 4학년/대학원생의 지지도 평균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정책수혜집단별 ‘향후 사회통합정책 유지 지지도’의 경우, 모든 카테고리에서 지지도 평균이 중립(5점)보다 낮았고, 특히 일반카스트의 지지도가 낮았다. 경제적 상황에 따른 지지도는 모든 카테고리에서 중립(5점)보다 낮았다. 다만, 저소득층의 지지도 평균은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노동시장 위험인지에 따른 향후 사회통합정책 유지 지지도는 전 집단에서 4점이하였다.

‘향후 사회통합정책 유지 지지도’는 유의수준 $p < .001$ 에서 학년, 수혜집단, 경제적 상황에 따른 통계적인 차이가 인정되나, 노동시장 위험인지에 따른 지지도의 차이는 인정되지 않는다.

<표 4> 인도 대학생의 향후 사회통합정책 유지에 대한 지지도

구분	n	M	S	F	scheffe*	
학년	1학년	523	3.82	2.31	6.634***	1, 2, 3 < 4*
	2학년	481	3.97	2.43		
	3학년	516	3.66	2.54		
	4학년/대학원생	280	4.48	2.74		
	전체	1,800	3.92	2.49		
수혜집단여부 (카스트집단)	SC	172	4.63	2.79	15.022***	OBC, 일반 < SC, ST*
	ST	130	4.89	3.03		
	OBC	484	3.93	2.27		
	일반카스트	1014	3.67	2.41		
	전체	1,800	3.92	2.49		
경제적 상황	저소득층	262	4.58	2.74	5.806***	-
	중위소득층	1,097	3.84	2.50		
	상위소득층	332	3.77	2.3		
	고소득층	100	3.56	2.06		
	전체	1,791	3.92	2.49		
위험인지도 (노동시장)	저	109	3.89	2.15	0.781	-
	중	801	3.84	2.29		
	고	890	3.99	2.69		
	전체	1,800	3.92	2.49		

* $P < .05$, ** $P < .01$, *** $P < .001$

2. 지지도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 분석결과

1) 군집분석에 따른 유형화

‘현재 사회통합정책 지지도’와 ‘향후 사회통합정책 유지 지지도’를 변인으로 K-평균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 시 군집 수는 2개에서부터 5개까지 늘려가며 25회 반복 실행하였다.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과 군집별 사례 비율, 해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반복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의 최종군집을 도출하였다. 최종 군집에 대한 ANOVA 분석 결과, 유의수준 $P < .001$ 에서 군집별 지지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 검정(Scheffe) 결과에서도 4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어 군집이 상호 배타적으로 유형화된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와 ‘향후 사회통합정책 지지도’에 따라 4개로 유형화 집단은 다음과 같다. <군집 1>은 현재와 향후 사회통합정책 유지를 모두 지지하는 군집으로 총 186명(10.33%)이며, 이를 ‘전면지지형’으로 명명했다. <군집 2>는 ‘현재’와 ‘향후 사회통합정책 유지’를 모두 반대하는 군집으로 여기에 속하는 응답자는 총 570명(31.67%)이며, 이는 ‘전면부정형’으로 명명했다. <군집 3>의 경우, 현재 사회통합정책에는 ‘긍정-중립’이나 ‘향후 사회통합정책 유지’는 반대하는 집단으로 총 736명(40.89%)이고, 이를 ‘현재중립/유지부정형’으로 명명했다. <군집 4>는 ‘현재 사회통합정책’에는 4.5점으로 부정-중립적이거나, ‘향후 사회통합정책 유지’는 찬성하는 군집으로 총 308명(17.11%)이며, 이는 ‘현재중립/유지긍정형’으로 명명했다.

<표 5> 인도 대학생들의 사회통합정책 지지에 따른 군집유형

구분	군집분류				F	scheffe*
	군집 1 (n=186) (10.33%)	군집 2 (n=570) (31.67%)	군집 3 (n=736) (40.89%)	군집 4 (n=308) (17.11%)		
현재 정책 지지도	7.97	0.95	6.09	4.52	2267.095***	2<4<3<1
향후 정책유지 지지도	8.61	2.38	2.70	6.80	2569.598***	2<3<4<1
지지특성	전면지지	전면부정	현재중립 유지부정	현재중립 유지긍정		

* $P < .05$, ** $P < .01$, *** $P < .001$

<표 5>를 통해 현재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지지를 살펴보면, 중립적인 집단('현재중립/유지부정형'과 '현재중립/유지긍정형')에 속하는 학생 수는 1,044명(58%)으로 과반수를 차지한다. 또한, 전면부정형이 570명(31.67%)으로, 반대 유형에 속하는 학생의 수도 비교적 많았다. '향후 사회통합정책 유지' 지지의 경우, '전면부정형'과 '현재중립/유지부정형'에 속하는 대학생이 1,306명(72.56%)으로 인도 대학생 다수가 향후 사회통합정책 유지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사회통합정책 지지 유형별 특성

'사회통합정책 지지'에 따른 4개의 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χ^2) 결과 사회통합정책 지지 유형-인구·사회학적 요인 간에는 통계적인 상관성(유의확률 $p < .001$)이 인정되었다. 이외 유형별 특성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정책지지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전면지지형'의 경우는 SC와 ST의 비중이 높으며, 노동시장 위험인지도가 높은 집단이 여기에 속한다. '전면부정형'의 경우는 저학년의 비중이 높고, OBC와 일반카스트의 비중이 높다. 상위소득층 이상, 노동시장 위험인지도가 낮은 집단이 이 유형에 속했다. '현재중립/유지부정형'에는 ST, 일반카스트, 3학년, 중위소득층의 비중이 높다. 또한 노동시장 위험인지도가 중간인 집단이 여기에 속한다. '현재중립/유지긍정형'에는 4학년/대학원생의 비중이 높았고, 다른 카스트에 비해 OBC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높다.

사회통합정책지지 유형화 특성과 상관관계 분석(χ^2)을 기반으로, 차별적 우대정책 수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년이 높을수록 지지도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저학년은 '전면부정형'에 속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고학년은 중립이나 유지 긍정에 속하는 비중이 높았다. 둘째, 수혜집단여부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나 세부집단에 따라 지지도가 달랐다. 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았던 집단인 SC와 ST는 상대적으로 '전면지지형'에 속한 비중이 높으나, '전면부정형'과 중립형에도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특히 정책 수혜집단인 OBC의 경우 '전면부정형'에 속하는 비중이 30% 이상으로 비교적 높았다. 따라서 정책의 수혜집단이 반드시 사회통합정책을 지지한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소득이 높은 집단은 할당제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고소득층과 상위소득층은 '전면부정형'에 속하는 비중이 높고, 중위소득층은 중립형에 속하는 비중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위험인지도가 낮은 집단이 '전면부정형'에 속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노동시장 위험인지도가 높은 집단이 오히려 '중립' 혹은 '전면지지'

에 속하는 비중이 높았다.

〈표 6〉 인도 대학생들의 사회통합정책 지지 유형별 특성 분석

구분	군집분류 (단위: 명)					전체	χ^2
	전면 지지	전면 부정	현재중립 유지부정	현재중립 유지긍정			
	명 (%)	명 (%)	명 (%)	명 (%)			
학년	1학년	53 (10.2)	195 (37.3)	209 (40)	66 (12.7)	523	84.988 ***
	2학년	62 (12.9)	176 (36.6)	167 (34.8)	76 (15.9)	481	
	3학년	32 (6.3)	126 (24.5)	269 (52.2)	89 (17.3)	516	
	4학년/대학원생	39 (14)	73 (26.1)	91 (32.5)	77 (27.5)	280	
	전체	186	570	736	308	1800	
수혜집단 (카스트 집단)	SC	46 (26.8)	49 (28.5)	55 (32)	22 (12.8)	172	114.271 ***
	ST	31 (23.9)	18 (13.9)	63 (48.5)	18 (13.9)	130	
	OBC	37 (7.7)	148 (30.6)	193 (39.9)	106 (22)	484	
	일반카스트	72 (7.2)	355 (35.1)	425 (42)	162 (16)	1014	
	전체	186	570	736	308	1800	
경제적 상황	저소득층	44 (16.8)	86 (32.9)	72 (27.5)	60 (23)	262	91.001 ***
	중위소득층	93 (8.5)	289 (26.4)	521 (47.5)	194 (17.7)	1097	
	상위소득층	40 (12.1)	139 (41.9)	111 (33.5)	42 (12.7)	332	
	고소득층	8 (8)	49 (49)	32 (32)	11 (11)	100	
	전체	185	563	736	307	1791	
위험 인지도 (노동시장)	저	7 (6.5)	55 (50.5)	26 (23.9)	21 (19.3)	109	895.383 ***
	중	53 (6.7)	203 (25.4)	372 (46.5)	173 (21.6)	801	
	고	126 (14.2)	312 (35.1)	338 (38)	114 (12.9)	890	
	전체	186 (10.4)	570 (31.7)	736(40.9)	308(17.2)	1800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다문화 된 한국 사회에 장기적으로 유효한 사회통합 정책의 시사점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현재 한국은 다문화 구성원의 주류 사회 편입을 돕기 위한 우대정책을 도입하는 추세로, 정책에 따른 갈등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선제적 연구가 필요한 시기다. 이를 고려하여 본 논문은 약 70년 간 카스트 기반 우대 정책을 실시 해 온 인도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인도 대학생의

지지도를 분석하고 지지 양상에 따른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 파악한 연구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인도 대학생들의 ‘현재 사회통합정책 지지도’ 분석 결과 중립적인 입장이 1,044명(58%)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 다수의 대학생은 ‘향후 할당제 유지’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둘째, 인도 대학생들을 정책 수용인식에 따라 유형화 한 결과, 4개의 집단, 즉 ‘전면지지형’, ‘전면부정형’, ‘현재중립/유지부정형’, ‘현재중립/유지긍정형’으로 군집화되었다. 이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현재중립/유지부정형’으로 736명(40.89%)이었고,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전면부정형’으로 570명(31.67%)이었다. 셋째, 정책지지의 유형별로 인구·사회학적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면지지형’의 경우는 SC와 ST의 비중이 높았다. ‘전면부정형’은 저학년의 비중이 높고, 고소득층, 노동시장 위협인지도가 낮은 집단이 여기에 속했다. ‘현재중립/유지부정형’에는 ST와 일반카스트의 비중이 높았고, 중위소득층의 비중이 높다. ‘현재중립/유지긍정형’에는 4학년/대학원생과 OBC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넷째, 정책지지 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학력, 수혜집단여부, 경제적 상황, 노동시장 위협인지도 모두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요인과 지지도 관계는 기존 연구와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먼저 인도 대학생의 경우 수혜집단 여부와 지지도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노동시장 위협인지도가 낮은 집단의 할당제 지지도가 떨어져, ‘위험인지도가 높을수록 차별적 우대정책에 부정적이다’는 통념과 반대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된다. 첫째, 우대정책 지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 집단이 존재하므로, 이를 토대로 한 정책 지지 유도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인도의 경우 4개의 정책지지 집단 유형이 있었고, 이중 특히 ‘현재중립/유지부정형’에 속하는 대학생의 비중이 높았다. 일례로 중립형의 경우 정책에 부정적인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지지’ 방향으로 유도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다. 반면, 이 집단은 ‘향후 정책유지’에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정책 지지 유도가 시급한 집단이기도 하다. 즉, 정책 홍보 시 정책 지지 유형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국가별로 정책 지지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정확한 여론 파악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정책 수혜여부나 노동시장 위협인지도에 따른 정책 지지도는 기존 연구 및 통념과 대조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각 사회마다 정책에 대한 지지 성향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국민의 지지에 기반 한 사회통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론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 사회에서 우대정책의 대상 선정 시에는 특정 문화집단 요소와 함께 정책 대상자의 일반적인 상황(경제적 상황과 노동시장 경쟁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정책 대상자들의 지지양상이 산발적으로 나타난 반면, 경제적 상황과 노동시장 위험인지도 같은 일반적 요소는 정책 지지도와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이는 카스트 등의 문화집단 요소보다 일반적/물리적인 상황이 정책 지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 시 문화집단 요소와 함께 물리적 상황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차별적 우대정책이 사회통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외 집단에 대한 ‘관용성’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물리적 환경이 양호한 고소득층과 노동시장 위험도가 낮은 집단에서 오히려 할당제에 대한 지지도가 낮았다. 즉,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집단이라고 하여 반드시 이웃에 대한 관용이 높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에서 차별적 우대정책이 사회통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정책 홍보 등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관용성 확보가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첫째, 수용자 중심의 연구를 수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할당제를 실시해 온 인도에서 1,800명에 대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정책 지지 의견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용자의 요구에 기초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했다. 둘째, 본 연구는 지지도를 바탕으로 정책 지지 집단을 유형화했다는 면에서 학문적으로도 의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 지지도에 대한 연구는 설문지 계획 단계에서 연구자가 지지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따라 나누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지지도 결과를 바탕으로 지지유형을 분류하였고, 그 결과 기존 연구보다 많은 지지유형과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2가지 중립유형(‘현재중립/유지부정형’, ‘현재중립/유지긍정형’)을 도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국내의 다문화 정책 관련 연구들이 서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본 논문은 인도를 대상으로 했다는 면에서 다문화 정책 연구의 대상을 넓혔다는 의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구조화 된 설문지의 결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응답자들의 정책지지 혹은 반대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질적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된다면,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재권(2014).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조사.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 박정훈·신정희(2010). 정부신뢰, 정책효능성, 정책지지간의 연관성 실증연구: 주거지역내 CCTV 설치 정책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8(3), 1-24.
- 박혜숙·원미순(2010). 대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과 관련변인 탐색, 교육심리연구, 24(2), 303-325.
- 신진영(2019). 다언어문화사회 인도의 포용적 언어교육정책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인도 3개 언어교육정책의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8(3), 177-204.
- 염미경(2012). 대학 다문화교육과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다문화이해 관련 교양 강좌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2(1), 211-233.
- 염철현(2013). 소수자우대정책의 최근 동향 및 시사점: 미국과 브라질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 25(2), 109-134.
- 원숙연(2011). 외국인정책에 대한 인식의 영향요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4), 561-589.
- 이민경(2018). 다문화사회통합을 위한 프랑스의 언어문화교육정책 -한국사회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8(1호), 88-116.
- 이부영·강운선(2015). 이주민에 대한 대구·경북 지역 대학생의 인식 유형에 대한 군집분석. 현대사회와 다문화, 5(1), 1-19.
- 이선형(2017). 한국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사회통합의 의제와 방향, 다문화콘텐츠연구, 25, 103-136.
- 이종일(2018). 소수자우대정책의 개념사적 고찰. 사회과교육연구, 25(2), 21-44.
- 이코노뉴스(2018). 보수기득권의 '다문화주의'는 진보적인가?, 2018년 10월 1일.
- 임동진·박경진(2012).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에 대한 정책참여자들의 태도와 성향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6(2), 29-62.
- 정해식·김미곤·여유진·김문길·우선희·김성아(2016).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Ⅲ)- 사회통합 국민 인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정인(2011). 누가 왜 여성결혼이민자들과 생산가능직 근로자들의 유입 증가를 반대하는가. 한국정치학회보, 45(2), 281-305.
- 최정욱(2019). 할당 비수혜 일반카스트집단의 할당제에 대한 태도의 다층적 분석: 인도 대학생 대면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지역연구, 28(3), 61-95.
- 허영식(2019). 독일의 이주통합정책에 관한 연구동향과 함의. 한독사회과학논총, 29(3), 63-88.
- 허영식·정창화(2012). 다문화사회에서 이주·사회통합정책 교차국가사례 비교분석. EU연구, 31, 55-81.

- 홍서연 · 손병덕 · 손주희(2018). 국민의 다문화 인식이 사회통합정책 수용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수도권거주 국민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2(2), 300-324.
- Abdullah, Firdaus H. (1997). Affirmative Action Policy in Malaysia: To Restructure Society to Eradicate Poverty. *Ethnic Studies Report*, 15(2), 189-221.
- Bernard, Paul (1999). *Social Cohesion: A Dialectical Critique of a Quasi-Concept? Ottawa: Strategic Research and Analysis Directorate*. 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
- Borooah, V. K, Dubey, A, Iyer, S., (2007), The effectiveness of jobs reservation: caste, religion and economic status in India. *Development and Change*, 38(3), 423-445.
- Braswell, Michael K., Moore, Gary A. and Poe, Stephen L. (1998). Affirmative Action : An Assessment of Its Continuing Role in Employment Discrimination Policy. *Albany Law Review*, 57(2), 365-440.
- Carr, Erika Ann (2007). *Attitudes Toward and Knowledge of Affirmative Action in Higher Education*. Doctoral Dissertation, Western Michigan University. 841. <<https://scholarworks.wmich.edu/dissertations/841>>
- Choi, Jungug and Kumar, Narender (2019). Reservation Policy for Backward Classes, *Economic & Political Weekly*, 54(51),40-46.
- Detroit News (2004). *Judge Stalls Race Preference Petition*, (Mar. 26). <<http://www.detnews.com>>
- Echols, C. V. (1997). *Measuring the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students on affirmative action and anti-discrimination: A quantitative analysi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kron.
- Economist (2013). *A Never Ending Policy*, (April, 27). <<https://www.economist.com/briefing/2013/04/27/a-never-ending-policy>>
- Government of India (2014). *BROCHURE on Reservation For SC, ST & Other Backward Classes In Services*. <http://persmin.gov.in/DOPT_Brochure_Reservation_SCSTBackward_Index.asp>
- Government of India (2019). *Reservation for Economically Weaker Sections (EWSs) in direct recruitment in civil posts and services in the Government of India*. <<https://dopt.gov.in/sites/default/files/ewsf28fT.PDF>>
- Grega, P., Bahr, K., Dolphen., D., & Legros, H. (2016). *Evaluation of the institutional actors' policy support*. Special Evaluation Office of the Belgian Development Cooperation.
- Haley, H. & Sidanius, J. (2006). The Positive and Negative Framing of Affirmative Action: A Group Dominance Perspectiv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5), 656-668.

- Indiakanoon (1992). *Indra Sawhney Etc. Etc vs Union Of India And Others*, Etc, (Nov. 16).
- LiveMint (2019). *India's per-capita income rises 10% to ₹10,534 a month in FY19*, (May. 31)
- Ministr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2018). *All India Survey on Higher Education 2017-2018*. Government of India.
- OECD (2011). *Perspectives on Global Development 2012: social cohesion in a shifting world*.
- Peters, James E. (2018). *Attitudes and General Knowledge of Affirmative Action in Higher Education Admissions At One Historically Black*.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in Tennessee. Electronic Theses and Dissertations. Paper 3362. <<https://dc.etsu.edu/etd/3362>>
- Public Perspective (2003). *Society-Affirmative or Negative?*, (March/April).
- Ramaiah, A. (1992), Identifying Other Backward Classes.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27(23), 1203-1207.
- Sharma, A., (2005). *Reservation and Affirmative Action: Models of Social Integration in India*, Sage Publication Ltd.
- Sowell, T. (2004). *Affirmative Action Around the World: An Empirical Study*.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Sukhdev (2016). A Study of Multiculturalism in India,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and Scientific Innovation*, 3(4), 96-97.
- UN.org. (1995). Social integration social Policy and development.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spd/social-integration-social-policy-and-development-division.html>>

〈ABSTRACT〉

Clustering and Characteristic of Perception Types toward Social Integration Policy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India

Jin-Young Shin · Jung-Ug Choi

This article categorizes the types of university students' acceptance and support of social integration policy and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in India. Multi-cultural countries are implementing policies with the Affirmative Act aimed at social integration. Korea is also gradually introducing policies of this nature. Public support is a very important issue in implementing social integration policies. However, until now, a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based on the public's supports. From the awareness, this study analyzes Indian university students' support for caste-based Reservation Policy and then provides implications for Korean multi-cultural policy.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1,800 college students across India. In this study, the supporting types toward the caste-based Reservation wer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full support type', 'full negative type', 'present neutral/maintain negative type', and 'present neutral/maintain positive typ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were analyzed according to 'education', 'beneficiary group', 'economic situation', and 'risk perception in the labor market'. Moreover, the key factors influencing the support were estimated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is study, various groups of supporting social integration policies in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ir complex characteristics were found, and key factors influencing policy support were presented.

Key words

Social Integration Policy, Multi-cultural Society, India, Perception Types, Determinant Factor

논문 투고일	2020. 08. 10
논문 심사일	2020. 09. 10
게재 확정일	2020. 09. 20

신진영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107,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회관 701호
indialover@hufs.ac.kr
최정욱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120, 건국대학교 상허연구소 714호
drchoi@konkuk.ac.kr